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6호 현대불교 2008년 9월 10일(음력 8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생활이 즉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제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좋지요? 이제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습니다. 더운데 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한마디 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을 다 받고 나중에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먼저, 사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도 봤습니다만 어느 사찰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 도량에서는 시식을 지내거나 하면, 항상 그 넓은 돌 위에 밥도 떨어다 놓고 과일도 떨어다 놓고 그러합니다. 그럼 그 돌 밑에서 나와서 먹기도 하고 날아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꼭 그 생명들을 위해서 갖다가 놓죠.

그런데 큰 구멍이가 돌 밑에서 그걸 받아먹으면서 한 2년 남짓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모두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는 거와 똑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나와서 먼 산을 보고 있는데, 그 돌 밑에서 구멍이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처럼 저도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도승들이나 들지 보통 사람은 못 들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겠느냐?" 그러니까 "죽더라도,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씀이 "너의 동료...", 즉 말하자면 뱀의 도반이라고 할까요. "... 300명을 꼭 교화를 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항상, 법당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시거나 또는 예불을 올리시거나 할 때 그분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말고 들을 수 있겠느냐? 셋째는 네가 3년 동안 이슬만 받아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한 거라도 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은 주는 것도 그때서부터는 못 먹고, 나와서 항상 이슬만 받아먹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을 교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랬죠. 그리고 꼬트머리에 가서는 "한 가지 못 잊으니까"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장독에 가서 잠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 사람이 먹는 장 방울을 얻어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항아리를 넘어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다. 장을 뜨러 왔을 때 떨어지는 방울을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탈할 수 있는구나." 했던 말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 본다면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다는 것이니까요. 또 노력하지 않고



그림 · 최추현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안 하고서 내가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멍이는 그걸 이겨 냈습니다. 이겨 내서 거길 떠나지 않고 공양주 스님이 간장을 뜨면서 떨어뜨린 거를, 그걸 그냥 기다리더니 얼마 지나가 막혔습니까? 그거를 받아먹고, 또 한번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세 번을 받아먹는

데 3, 4년이 넘게 걸렸단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려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없는 광년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진화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진화되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리를 볼 때에도 그렇지만, 또 (배를 짚으시며) 우리 오장 육

부 속에 그 모습과 의식과 생명이 다 들어 있으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이는 바다귀만 남아 가지고 너무나 애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고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데, 그 스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자손 없는 집으로 인도를 했죠. 그거는 부처님의 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모두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자라서 어른이 돼서 지금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 하나 벗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토끼라든 토끼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새라든 새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또 개라든 개 모습 벗기가 어렵고, 소라든 소 모습 벗기가 어려운데, 부처님 경지에 이르러야만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 가지고도 99%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육조(六祖) 스님이 오조(五祖) 스님한테 대답하기를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했던 말입니다. 내 불성이,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불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들고 내고 하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만법을 들고 낼 수 있는 불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법을 스스로 들고 내고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말로 해서는 실감이 영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누구에게나 다 물질과학이 50%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과학이라는 걸 거기다 붙여서 100%를 만들어서 불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이러한 원인이 정신계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물질계를 다 알아 가지고 이제 정신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기까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물질계 속에서 '정신계를 물질계를 리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빠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그냥 착이 산다고만 생각하고 가니까 이젠 50%의 물질계만 알면서 수없는 광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계로 들어서도 또 50% 정신계에서의 수없는 광년이 지나야 할 테

니까 말입니다.

이러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나는 요새 말입니다. 물에서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나 또 사람들이나... 어떤 때는요. 아, 어떡하면 그 아픔과 쓰림, 맞아서 아픈 것도 아니면서도 왜 그 쓰리고 아픈 게 있죠? 그리고 먹고고 먹고, 또 사람들은 모두 그 심성, 즉 말하자면 정신을 뺏기고 뺏어 먹고... 이 세상이 모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때는 지나가나 그 사는 모습이 머리에서 모두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재주로는 그거를 몽땅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두 한 개체로 태어난 것이라면 자식을 낳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쪽이 되죠. 그런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종자의 과정과 그 무엇이 등장할 안 하면 이 우주 법계는 법계라고 할 수도 없고 다 무너질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그지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하다고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이것을, 세상에 사람 사는 것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건 무(無)의 세계로 인해서 유(有)의 세계가 돼야 하는데, 무의 세계는 저버리고 유의 세계 속에서만 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귀신이 너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나의 보이지 않는 거하고 동일하게 되니까 귀신이 아니라 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탈 때도 관하고 타라. 내릴 때도 감사하게 관하고 내려라. 어딜 가든지 '이건 뭐 꿩살을 거야' 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겠다고 항상 자기 자בל을 진짜로 믿고, 위협하든지 뭐든지 모든 것은 거기가 맡기고 해라. 사업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이 겹떼기를 리드해 나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심부름하는 겹떼기가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진짜로 아신다면 우리 살아가는 생활이 급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벌레 고(蝨), 집(集)이 있다면, 즉 집착을 하면 고가 생긴다 이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다면 자기가 고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착을 하는 것도 아닌 게 단단 말입니다.

26면으로 계속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 · 한자풀이법화삼부경 완역

계한 해 / 일여 집주 / 김진철 국역



사경겸용 한자풀이 법화삼부경

- | | | | |
|----------------|------|--------|-----------|
| 1. 묘법연화경 전 12권 | 4×6판 | 2,415쪽 | 권당 5,000원 |
| 2. 무량의경 | 4×6판 | 216쪽 | 권당 5,000원 |
| 3. 관보현보살행법경 | 4×6판 | 192쪽 | 권당 5,000원 |

사경겸용 한자풀이

- | | | | |
|--|------|--------|---------|
| 4. 금강경 외 8종 | 4×6판 | 172쪽 | 10,000원 |
| 5. 명심보감 | 4×6판 | 246쪽 | 6,000원 |
| 6. 천자문 | 4×6판 | 46쪽 | 2,000원 |
| 7. 사자소학 | 4×6판 | 52쪽 | 2,000원 |
| 8. 계몽편 | 4×6판 | 73쪽 | 3,000원 |
| 9. 노자장자 일부 | 4×6판 | 155쪽 | 근간 |
| 10. 초발심자경문, 기타 7종 - 불교 천자문, 기타 5종 - 유교 합권 | 4×6판 | 317쪽 | 8,000원 |
| 11. 중용·대학 | | 110쪽 | 근간 |
| 12. 한자풀이 법화삼부경, 1권 | 4×6판 | 2,604쪽 | 10만원 |
| 13. 세종왕조국역장경 · 묘법연화경 · 1권 국역 송, 계한해 · 명, 일여 집주 | 4×6판 | 1,890쪽 | 10만원 |
| 14. 법화경 우바제사 (논)세진, 법화경 소/길장 합본 1권 | | | 근간 |

구입문의 법화선원 마하사 02)591-4170, 011-393-8937

도서출판 법화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58-6 법화선원 마하사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지도사 강좌안내

[일반인반 · 스님반]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전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측동맥,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트름, 비염,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편마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 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열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상기병,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일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교에 활용/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자녀교육에 활용/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이웃에 건강 복 짓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쁜, 실습 모두 학습)

- 가. 강좌 구분
(1)스님반 (2)2일: 금요일 오후 도착, 토요일 9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2)일반인반(1)2일: 토요일 오후 2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나. 강좌 내용

- (1)공통(스님반, 일반인반)
◆우주의 기운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5행으로 본 인체
◆전통따주기, 각 따주 기 ◆피가 생성되는 기초 따주 기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신기한 비장 따주 기
◆병 예방 비법 및 실습 ◆중환,질 및 담변,지도사수영증 수여

(2)스님반 추가

- ◆수치의 비법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수상 및 관상 보감 ◆작명 비법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각반 선착순 12명)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 (1)일반인반 : 2008. 9.27(토) ~ 9.28(일) 25만원
(2)스님 반 : 2008. 10. 4(토) ~ 10. 5(일) 34만원
[10월 3일 금요일 오후 도착]

※각 반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다. 장소 : 총남교육장

※ 옥항도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